

익산산단 분양 고군분투

정현울시장 적극적 기업유치로 85% 성과... 시 부채해결에 효자노릇

익산 3~4산업단지 분양률이 사실상 완전 분양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시장 정현울)는 외국인투자 기업 전용단지, 한류패션 전문단지(유턴기업)부지를 제외한 일반산업단지가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6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현울 시장은 취임 후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유치에 주력하며 산업단지 분양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완전 분양에 가까운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으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분양대금으로 기존부채를 상환하

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현울 시장의 취임 초기인 2016년에 42%에 불과했던 분양률이 현재 85%에 이르렀고 특히 2018년 재선 이후 두드러지게 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대금의 입금현황을 보면 2016년 132억에 불과하던 금액이 재선에 성공한 2018년에는 188억, 2019년에는 212억, 2020년에는 최대금액인 316억이 분양대금으로 입금됐으며 올해에도 벌써 50억원 이상의 분양대금이 입금돼 익산시 부채해결에 큰 효자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부채를 당초 계획보다 7년 앞당긴 2019년 9월에 상환완료해 부채 제로시대를 열

었으며 이어 후속 중요정책인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청년들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과 주거문제 대책을 세우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1년에 발표한 95개 인구정책이 모든 연령층에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천동에 사는 시민 A모(48)씨는 "코로나19 사태만 진정되면 익산은 분명 좋아질 것이다"며 "과거 호남 3대 도시였던 익산의 중흥기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교내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2020학년도 산학협력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2020학년도 군산대 산학협력단 성과발표

지역협업 기반 및 지역 선도대학 역할 수행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교내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2020학년도 산학협력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하여 참석자를 필수참석자 30명 이내로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다.

참석 대상자는 군산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군산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포창 및 공로패 수여자 등이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출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협력 성과 창출 기여자에게 포창 및 공로패도 수여됐다.

수상자는 ▲산학협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지자체 관계자 ▲연구비 수주 및 간접비 수익 증대 기여자 ▲기술 이전을 통한 지역산업체 경쟁력 강화 기여자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기능 강화 기여자이고, 수상자에게는 군산대학교 총장 감사패 및 공로패가 수여됐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3년 12월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년 7월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현재 미래신산업 산학협력체계 고도화, 연구행정 서비스 강화,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수익강화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팔복항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잠깐! 깜박깜박 안돼요!' 동화책 출판

군산 월명어린이집 박은주 원장,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

아이들이 코로나19를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동화책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군산시 월명동에 위치한 월명어린이집 박은주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가정보육을 실시하게 되며 제공받는 전단지들을 받아보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박 원장은 평소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하면서 유아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유아교육용 동화를 자체 제작했으며 제작과정에서 알게된 출판사 대표의 권유로 동화책 출판까지

하게 됐다.

동화책은 외출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가장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을 일상생활 예시를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구연동화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원장은 "이 책은 코로나19를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이해하며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잃어버린 일상생활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나들이 하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오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다"고 전했다.

군산=고령만 기자

군산시, 전기차 산업 생태계 구축 청신호

이피캠텍, 이차전지 배터리 핵심소재 군산공장 준공

군산시는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인 전해질을 비롯한 관련 첨가제를 생산하는 유망중소기업인 이피캠텍(주) 공장 준공식을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피캠텍(주)는 충북 음성 소재의 중소기업으로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신설 투자해 건축 3,129㎡ 규모의 배터리 핵심소재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군산시 신현승 부

시장,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김환기 총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경호 기술사업화 단장, 이피캠텍 이성권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피캠텍(주)는 군산에 150여억원을 투자해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인 전해질을 비롯한 관련 첨가제를 생산하는 유망중소기업으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군산의 산업구조와 산

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피캠텍이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전해질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터리 출력 및 수명을 향상시키는 주요소재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신현승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군산에 투자를 결정해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차전지 및 미래 산업으로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한현봉 기자

119구조대 "귀소 중 화재현장발견, 인명피해 막아"

익산소방서, 초기 집압 성공

익산소방서 119구조대는 지난 16일 오전 2시경 승강기사고 현장 활동 후 귀소 중 우연히 도로 옆 건축물에서 치솟고 있던 불길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경감했다.

당시 건물은 장애 어린이집 부속 건축물로 최성기 상태에서 인접 샌드위치패널 건축물로 연소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방력 투입에 의한 초기 집압활동이 매우 요구되는 상황 이어서 자칫하면 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화재 발견 후 119상황실에 즉시 신고함과 동시에 집압활동 및 출동대 진입로 유도 및 불안정한 장애물 제거와 선차대 도착 즉시 초기 집압 활동에

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소확대방지 등 초기 집압활동에 성공할 수 있었다.

유형선 구조대장은 "귀소 중 대원들이 조기발견 및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었다"며 "화재는 최초 발견 후 1~2분이 중요하고, 내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익산소방서 119구조대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통

군산대 전기학위수여식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군산대학교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2020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345명, 석사 96명, 박사 4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올해 학위 수여식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됐고, 100인 이하의 최소인원만 행사장에 입장하되, 행사 미참석 학위 수여자 및 학부모를 위해서는 인터넷 실시간 중계했다.

행사 참석자는 단과대학별 대표 학위수여를 받은 학생과 포상수여자, 주요 보직자 등 100명 이내로 최소화했으며,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출입자 간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광대 HK+지역인문학센터 찾아가는 NEAD 라디오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HK+동북아시아다이얼먼션연구원 지역인문학센터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찾아가는 NEAD 라디오 시즌5'를 진행한다.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주제인 NEAD는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의 공동체 구축을 의미하며, 찾아가는 NEAD는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유형 문화와 그 속에 숨겨진 인문학 이야기를 들여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MBC FM모닝쇼 김차동입니다를 통해 매주 일요일 송출되는 '찾아가는 NEAD 라디오 시즌5'는 지역 주민들에게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주제적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의 안타까운 비극을 다루는 가운데 김주용 교수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기본 개념과 동화'를 시작으로 천춘화 연구교수의 '김산과 경신참변', 문준일 교수의 '어느 소련계 유대인의 저항과 불굴의 삶', 박해남 연구교수의 '1980년 5월 광주'의 학살... 등이 연이여 송출된다.

익산=장양원 기자